



#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朴 雄 鎮

編輯人：姜 容 求

印刷人：朴 炳 萬

(住所) :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 : 150-057 (電話) : 02-845-1090 (FAX) : 02-845-1091 (非賣品)

## 4次年度會長就任

### 취임사

존경하는 선후배 그리고 동기생 회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면에서 부족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명예와 전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직을 맞게 되어 개인으로는 일생일대의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미비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崔恒基 會長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역대 회장님들



1996년 7월 1일 공사 총동창회장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회장 朴 雄 鎮

- ▶ 약 력
- 충북 충주 출생
- 공사 4기
- 명예 문학, 경영학 박사
- 시인(시집 11권 발행)
- 국제라이온스협회 총재 역임

이 이룩한 업적을 보다 빛내도록 혼신의 힘을 바치겠습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총동창회도 여러분의 뜻을 모아 발족한지

금 명예나 자부심을 부각시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동창회에서 하여야 할 일 가운데 정통을 확립하고 명예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배지를 제작해서 전회원에게 배포하여 긍지를 갖도록 할 것이며 사라져가는 孝心和 道德心을 回復하기 위해 同門들 가정에 가훈 써주기 운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또한 보내오는 會費는 一切 銀行에 入金하고 運營費는 얼마가

### 전통과 명예확립 힘쓸터

三개삼상의 세월밖에 안됐기에 아직도 기틀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운영자금 조성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의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머지 않아 반세기의 연륜을 맞이하게 되면서도 내놓을 만한 뚜렷한 전통이 없고 졸업생들로 하여

들던지 本人 個人的 私費로서 應 當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하겠습니다.

아무리 熱과 誠을 다해 노력한 다 해도 동창회 발전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후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就任辭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星 武 台

어느 회사 간부 책상 위에 「一笑三少 一怒四老」라는 글귀가 써여있다. 하도 글귀가 좋아서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다. 한번 웃으면 세번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네번 늙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速度文化 속에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상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心理 變化의 표현인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지 않으며 잘 성내고 쫄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살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

지나온 우리의 긴 역사는 수난의 역사요 질곡의 역사였다. 오천년 역사가운데 9백 31회의 외침을

겪어 맞은 삼으로 웃음을 짓고 살아온 습성이 오늘날 웃음을 잃은 민족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지.

국민소득 만불의 시대

## 웃으며 살자

받아 전란 중에서 살기 위해 쫓기고 숨고 피난 가고 삶의 터전을 잃었으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으며 잠을 편히 잤겠는가?

가난에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무서움에 놀라

에는 제발 웃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텐데. 웃음은 기쁨을 때 나오고 기쁨은 행복할 때 느끼는 것이다. 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다. 세상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행복하다고 마음먹으면 기뻐

질 것이고 기뻐지면 자연히 웃음이 나올 것이다. 또 웃다보면 기뻐지고 기뻐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신체상으로는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내것이 아니면 그대 것이요, 그대 것이 아니면 우리 것이다. 비었으면 채우고 넘치면 나누는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가 될 때 가정은 화목하며 사회는 명랑해지고 나라라는 번영하며 동포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웃고 살만한 나라가 아닌가? 무역은 천억불을 넘어서 세계



10大 交易國이요, GNP는 1만불 12位, 올림픽은 열아홉번째로 성대히 치렀고 월드컵도 일본과 공동 개최이지만 동양서는 처음으로 유치했다. 이 정도면 東方의 文化民族의 긍지를 갖고 더 크게 더 환짝 웃으며 살아가도 될 것이다.

## 4次年度 臨時 理事會 召集 公告

本會 會則 第18條에 의거 臨時 理事會를 다음과 같이 召集하니 理事님들은 全員 參席바랍니다.

- 1. 日 時 : 1996年 12月 11日(水) 18:00~20:00
- 2. 場 所 : 空軍會館
- 3. 參 席 : 副會長 및 理事
- 4. 內 容 : ① 任員들간의 相見禮  
② 歷代 會長任들의 禮遇 問題 討議  
③ 本同窓會의 別稱 問題 討議  
④ 배지 配布  
⑤ 送年 親交 파티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長

社說

보도에 의하면 김일성의 문상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김정일의 권력승계도 내년 7월 이후로 미루었다고 했다. 2년 전, 1994년 7월 8일 김일

가 아날 수 없다. 설혹 역사의 의외성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북한 사회에서 돌발하였는가? 그것은 북한지역에 공산주의를 이식시켜준 러시아의 역사가 북한을 우리의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해주고 있다. 러시아는 1480년경부터 차리즘

그러나 「스테판 라진」의 농민 전쟁 이후, 수 없이 일어난 농노들의 반란은 2백 40년 이상 계속되다가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으로 일단락되었다. 2백 40년 동안 농노들의 투쟁을 성공시키지 못한 이유는 농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사가들은

우리는 통일 통일하고 있는데 과연 통일이 언제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북에 혈육을 두고 온 이산가족들의 심정에서 통일을 생각해 보자. 국민들이 성급히 원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조건이 성속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으며 더구나 공산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좌파들의 망국적 통일론과 흑 금강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단순한 욕구 때문에 성급한 통일을 원하고 있거나 않는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국제적 환경이 성속되어야 하고 북한이 변하고 개혁되어 민주화 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의 통일이 지가 확보되어야 통일준비가 완성 되어야 한다.

북한 이해의 잣대

성이 사랑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곧 통일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과 북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다. 2년이 지난 현실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자성을 해본다. 우리는 1년 더 연장되는 북한의 유혹통치를 지켜보면서 우리 식 사고로 북한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세상에 산사람이 통치를 해도 많은 비판을 받는데 죽어 무덤에서 통치를 3년째어나 해도 아무런 비판이나 반시위가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은 분명 기성천외의 국가

이 지배해 온 나라이다. 이반 4세 때(1480년) 이미 비밀경찰을 만들어 정적을 탄압하며 황제의 권위와 통치력을 강화해 왔다. 그때 러시아의 인구는 3천 5백만 명 정도이고 그중 2천만명은 농노신분의 노예였고 나머지는 귀족 지주였다. 이 나라는 북한처럼 재물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다. 또한 유럽의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농노해방을 부르짖는 민중봉기와 반란이 일어날 때는 외국에 전쟁을 일으켜 극도의 긴장과 위기감을 조성시켜 국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진압해 왔다.

분석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북한사회 내부부 개혁시키거나 몰락시킬 지도자도 없을 뿐더러 기반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의 차리스트들처럼 조금만 이상한 조짐만 보이면 무자비하게 죽이고 격리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3분의 1도 안되는 특권층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핑크색 기대감으로 북한을 분석하고 바라만 보고 있고, 또 일부는 저들의 고단 술수에 말려들어 이적행위를 받듯도 하며 망상에 빠져 있다.

자유단

적으로 보여준 이 사건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사례 중의 하나이다. 한편 1995년 8월 중순까지는 강원도 일부를 제

람 자체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수자원 확보경쟁은 전개되고 있다. 터키와 시리아가 유프라테스 강물을, 그리고 이집트와 수단이나 일 강물을 서로 많이 확

보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미국의 동부지방의 농민들은 중서부에서의 강수를 폭탄태러를 강행하면서까지 막았다. 중서부의 인공강수가 동부의 강수자원을 빼앗아간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마땅

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을 정리하여 다음 다섯가지로 압축하여 보았다. 첫번째는 인공강수이다. 대기 속의 수증기가 동해로 빠져나가기 전에 물로 응결시키자는 방안이다. 미국의 네바다 주에서 인

수자원 경쟁시대의 확보대책

1995년 8월말, 충주댐은 수문을 열고 초당 약 10만톤의 물을 3일간 방류했다. 3일간 방류한 물을 생수값으로 계산하면 약 1조원이 넘는 양이다. 같은 기간 소양강댐도 수문을 열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영호남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포항에서는 식수 등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민간인과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제철회사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이 대립은 이듬해 4월까지 지속되었다. 수자원의 공간적 불균형을 단

위한 거의 전국이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8월말에 비가 오자마자 금강과 한강유역이 홍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수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수자원의 시간적 불균형을 보여 주는 이런 일은 우리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한반도에서도 수자원의 절대



변희룡(공사 21기) (부경대학교 교수)

한 방안을 찾지 못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시설로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각국이 수자원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는 행위는 수자원 부족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과 잘 상충하는 감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작금에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

공증실을 위해 수년 전까지 이용된 방법이기도 하다. 수증기 소유권을 가지고 다룬 인근 국가나 지역이 없고, 태백산맥에 비를 내리게 하면 거의 전국을 적셔 줄 수 있다는 한반도 특유의 지형적 장점까지 있다. 그러나 아직 기술도 이론도 부족하다는 점, 효과가 과학적으로 (7면에 계속)

(주) 씨에스씨

한국의 전자, 통신, 방송, 반도체 및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세계 최첨단의 설계, 제작 및 측정용 장비만을 공급해오고 있는 기업, 창조(Creativity), 성실(Sincerity), 협동(Cooperation)으로 성장하는 기업

- |   |   |
|---|---|
| <p>해외거래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Data I/O</li> <li>• 미국 Signal Technology</li> <li>• 미국 Trilithic</li> <li>• 미국 General Signal</li> <li>• 미국 Unson</li> <li>• 미국 Proxim</li> <li>• 미국 Entran</li> <li>• 미국 Drake</li> <li>• 캐나다 NorTech</li> <li>• 독일 Daimler-Benz Aerospace of the Donier Satellite System</li> <li>• 이스라엘 Horizon</li> <li>• 일본 Graphtee</li> </ul> | <p>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설계 및 제작용 S/W 및 Programmer</li> <li>RF, Microwave 관련부품</li> <li>CATV 설비측정장비</li> <li>LAN/WAN용 Switcher, Protocol Analyzer</li> <li>항공기 엔진부품</li> <li>무선 LAN용 장치</li> <li>초정밀 Sensor</li> <li>Intercomm System</li> <li>광통신 측정기</li> <li>인공위성 안테나 설비</li> <li>Power Supply</li> <li>공장 자동화용 레코더</li> </ul> |
|---|---|

대표이사/회장 이윤우(공사 6기)



# 나의 제언



郭在植(공사5기)  
· (예) 공군중장  
· 대우항공우주센터  
연구위원

승용차 뒷편 좌우 차폭등 中央에 海兵모표와 같은 양각의 철제 스티커(Sticker)가 붙어 있는 승용차를 전국 각지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海兵出身 장군 한 분과 자리를 같이한 機會가 있어서 물어 보았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軍복만 아니라 個人住宅의 문패 위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海兵出身의 승용차요 또 주재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고 했다.

이처럼 代代로 지켜져 내려오는 훌륭한 전통의 긍지와 자부심은 그 組織의 生命이요 국가초석의 일부이기도 하다. 나는 空軍士官學校 出身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 왔는가, 해 왔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자문해 보면 답답해진다. 校歌와 空士+訓이 곧 母校의 傳統이 아니냐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어쩔지 未洽한 듯하다. 이제 3년이 지나면 朋校 50주년, 즉 半世紀의 歷史를 지니게 되는데 50기 생도가 入校하여 선배들에게 우리학교의 전통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또 容儀端正, 消廉潔白, 誠心服從, 責任完遂, 信賞一貫, 公平無私, 沈着果敢, 信賞必罰, 率先垂範, 그리고 恩威兼備하라는 空士+訓이 우리 학교의 傳統이라고 설명해 준다면 신입생들이 理解할 수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졸업반 4학년 생도들에게 空士를 졸업하는 生徒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한결 같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90年度에 4학년을 대상으로 特講을 한 機會가 있었는데 그때 몇명의 생도에게 물어 보았더니 傳統이란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날로부터 이어내려 오는 思想, 慣習, 行動 따위의 양식 또는 그것의 核心을 이루는 精神」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50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母校의 思想, 慣習, 行動의 양식은 무엇인가. 外形的으로 아무 표지가 없어도 저런 行動양식을 갖은 것을 보니 空軍士官學校 出身이구나 할 程度의 바랄만한 전통적인 生活姿勢가 아쉬워진다. 傳統이란 自然 발생적으로 오랜 歷史가 만들어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學校의 教育理念을 바탕으로 4年間의 集團教育生活의 커리큘럼(Curriculum)을 科學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그 과정대로 나오지 않고 이수하게 되면 最少한 異質은 具備한 人格의 소유자가 나온다는 System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높고 빛나는 한배님 정신을 이어 받자고 수만 번 외친다고 또 空士+訓을 毎日같이 암송한다고 해서 母校의 傳統이 세워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높고 빛나는 한배님 정신을 이어받자 하  
★(7면에 계속)



郭泳達(공사7기)  
· (예) 공군중장  
· 전 국회의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3월 15일 개교 이래 47년간 44기까지 6천여명의 대가족을 배출 성장하면서 6·25 동란의 시련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영공방어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3군의 균형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신있는 선배들의 끈질긴 정예공군 육성지의지와 최고 통수권자의 국가안보 통치철학과 공감대가 일치되었을 때만 특별한 배려에 의한 예상으로 공군력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총동창회 발전과 회지 발간도 이와 맥을 함께 하여 온 연고로 1952년 10월 五五會紙 창간과 1957년 10월 공사신문 창간 이후에도 발다른 발전과 활성화를 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1970년 7월 18일 본격적인 공사총동창회 조직과 더불어 의욕적이고 발전적인 총동창회 활성화 노력도 1973년 4월 1일 정치적인 탄압으로 강제 해체된 이후 20여년을 표류하다가 정부의 신정부 출범 후야 정치적 해금의 시류에 따라 몇몇 뜻있는 선배들이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건하고 있는 총동창회를 대를 이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총동창회 설립 목적을 회칙 제2조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구체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그 동안 군사문화로 일괄 패도되었던 공군문화를 재건하여야 하겠다. 공군문화의 정신은 곧 빨간 마후라의 정신이요, 이는 곧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사교훈의 정신이기도 하다. 쿠데타로 사본오염된 정치군인들처럼 개인적 영욕에 오멸되지 말고 한번 공군은 영원한 공군이라는 공군문화를 재건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현역과 예비역 교류를 더욱 확대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군의 주요 정책발전에 자문기회 확대와 체육 및 복지시설 활용기회 확대 등은 일체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셋째는 국내 동창과 국외 또는 교포 동창간의 교류 활성화이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편향된 사고를 탈피하여 동창회 설립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범세계적 무대를 활용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여행, 이민, 유학, 사업 및 회의참석 등)을 개발하여 어디를 가든지 빨간 마후라의 가족적인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으로 평생동창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빨간 마후라 인물만들기이다. 세  
◎(7면에 계속)

모교전통문체 연구를 위하여

더욱 튼튼한 동창회 기반구축

## 사업본부 요원 초빙

당사는 환경기어 생산업체로 최첨단 반도체 냉매(세계특허출원)를 개발, 제품의 첨단화 차별화로 매출규모 연 3,000억의 동업계 국내선두기업으로 공신력과 선진 외국 경영시스템을 도입 빠른 승진과 높은 보수로 공사고 출신 예비역 장교를 초빙코자 합니다.

• 승진 및 보수

구분	승진	대 리 인	관 리 부 장	본 부 장
소요기간		2~3개월	3~8개월	8개월 이후
보 수		180만원 이상(월)	250만원 이상(월)	400만원 이상(월)
업 무		경영 매니저 연수	교육 및 행정지원	사업경영 및 인력관리

※ 무담보, 무보증, 무투자

○ 제출서류 - 이력서 1통(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2통

○ 접수기간 : 1996. 9. 1. ~ 1996. 10. 31.(문의전화 : 734-1070~1)

(주) 청호물산 환경사업부

隨想



장 덕 수(공사 13기)  
공사 교수(철학박사)

# 이런 분 때문에 공시졸업이 자랑스럽기도 부끄럽기도

공군의 한 분야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지금은 모든 공직에서 떠나신 공사출신 선배 한 분이 계시다. 좁은 공군이라 누구라고 밝히면 이해관계에 따라 군소리가 생길지 모르고 그것은, 그 귀한 분에게 더이 될 것 같지 않아 아쉽지만 안개 속에 물어두자. 하얀군 출품하신 분이시다.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 자체가 생겨나지 못했을 테니까.

지금은 세상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현역으로 일하실 때는 군이나 사회가 매우 한심했다고 분데서, 눈을 부릅뜬 사람은 별로 없을 줄 안다. 최근 시중에 인기있는 책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람>의 저자 최일도 목사가 방송에서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표현을 자주 썼더니 후배 목사가 전화를 걸어 “선배님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어느 한 곳 썩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하더라. 그래서 물기를 “자네는 정말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자네 눈이 썩었기 때문이야”라고 되박았다고 했다. 사명감에 찬 시각 나름으로는 담연히 할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모조리 주관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군의 그 선배분들 시대는 적어도 소신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접받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분은 중령까지 그런대로 포나계 좋은 편을 받으면서 진급해 올라갔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대령진급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기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진급이야 속말로 까봐야 아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찍하면 입맛’이라고 일찌감치 속차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었던다. 하기가 경쟁상대가 많을 때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무능력을 세상이 되먹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시시결령한 분이라면 애시당초 거론할 가치도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본인의 예상을 뒤엎고 진급이 되었던 것이다. 속말로 그 어렵다는 S대학은 수석 입학생이라도 발표 순간까지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게 마련이지만 그런 종류의 불안을 뒤집고 그분도 진급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사정이 그랬다면 “이상하다. 내가 어

떻게 진급을 했지?” 하는 의문이 남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부터 수수께끼를 안게 되었다고 한다. 진급을 둘러싼 주변 인간관계를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그 여건 속에서 자신의 진급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날, 공사의 초창기 졸업생 선배 한 분을 만났을 때 “자네가 ○○○대령인가? 자네가 어떻게 진급이 된 줄 잘 모랄까?” 하면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이랬다고 한다. 그 초창기 선배의 동기생 중에 한 분이 그 진급해당자와 같은 특기분야였는데 대령으로 예편하면서 곧바로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 이민을 떠나 보내는 동기생들의 환송모임에서 떠나는 분이 “내가 공군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방으로 떠나면서 동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우리 후배 중에 ○○○중령이라고 있는데 공군을 위해 꼭 대령진급을 시켜주세요”라는 요지의 간청을 했다는 것이다. 조국을 떠나는 마당에 유일한 소망이, 출탄한 후배의 진급이라는 사실 앞에 그 동기생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추천하는 후배라면 그만한 자격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래서 무난히 진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조국을 떠날 때 품은 마지막 소원의 대상이 될 정도의 후배라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공군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겠는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어서 예상대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군을 떠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알 것으로 믿는다. 그분을 제대로 아는 졸업생이라면 선후배를 막론하고 공군사관학교를 같이 졸업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자랑스러워해 마땅하다. 그런 사람을 말없이 뒤에서 받쳐 주고 의국으로 조용히 떠나가신 그 선배분이야말로 생각할수록 우리를 감동케 한다.

공사의 훌륭한 졸업생이야기라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더 많은 사실들, 숨겨진 감동적 자랑거리들이 있을 줄 안다. 두우고 발굴해야 할 가치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오늘날의 사관생도들도, 더러는 생도생활이 딱딱진다 해도, 아마 이렇게 독백할 것이다. “아! 내가 공사에 들어오길 잘했어!”

그런데 그 훌륭한 후배가 현역시절에, 사무실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근무상태를 열렬히 좋아하는 어느 선배 지휘관 한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오면서 책을 읽는 그 후배를 향하여 던진 말인즉, “야! 이새끼야, 그 계급이 돼도 책 안 읽으면 일 못하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친한 사이라던 그 정도의 비어짜미야 애고일 수도 있겠다 근무시간에 잡서라도 읽어 주위의 눈총을 받는 상황이라면 한마디 야단을

칠 만도 하겠지만, 그분이 책을 읽어야 하는 직책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그 직책의 의미를 곰씹어 본다면 지난날의 막된 군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여 쓴 웃음을 짓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들 또한 어디 이 뿐이겠는가? 덮어두어 좋을, 어두운 단면들도 인간의 삶 속에 어딘가 없었는가만은 후배들에게 교훈이 될, <꽃>을 가진 치부라면 그것을 드러내는 용기 또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자라나는 후배들로 하여금 때로는 아프도록 부끄럽게 느끼게 만들어 다시는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출 수 있는 사건이라면 열심히 발굴해야 마땅하리라. 그게 바로 역사가 아니겠는가?

어느 사관학교는 졸업생 중 최고 선배 가운데 여러 사람이 역사의 심판대에 서서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갖 졸업한 위관장교까지 ‘빨간 스포츠카와 여자’ 어찌고 하며 은행강도 짓거리를 하기도 하고, 가짜 총을 사기사건으로 자신의 모교와 졸업생에게 먹칠한 또 다른 사관학교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는 우리 공사 출신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어느 해인가 서울의 E여자대학교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공사생도 성가대를 인솔하여 합창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다. 생도들이 단상에 정렬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짧게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난다. “이 대학이 명문대학이라고 여러분은 자부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명문대학은 여러분들이 이름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나라 역사가 이 학교의 발자취를 되돌아 본 후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여론 조사에서, 결혼상대 남성의 인기직업이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과 상위를 차지했다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 남성은 너나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상위집단 속에 질러고 몰부림될 것입니다. (중략) 비록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이 나라 역사 발전에 말없이, 이름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학생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어야 이 땅의 남성들이 바른 길을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문대학은 여러분이 이름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가 붙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너나없이 자랑스러워 할 아름다운 이야기와 아울러 과거의 교훈적 치부를 발굴전파하면서, 선후배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동문 모두가 -군을 떠났건, 현역에 있건, 혹은 생도 신분인데 간에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리라 생각해 본다.

## 한영성경협회

- 한영 성경전서 찬송가(합본)  
(NIV, RHV Korean-English Bilingual Bible & Hymal)
- 한영 성경전서(NIV)  
(NIV, RHV Korean-English Bilingual Bible)
- 한영 성경전서(NKJ)  
(NKJ, RHV Korean-English Bilingual Bible)

대표 : 권혁달(공사 9기)

TEL : (02) 579-1147~8 FAX : (02) 579-1149

軍事研究論文



전 윤수 (공사 5기) 전 공군참모차장

1. 현대전의 성격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무기혁명이 일어나 전쟁발달 가능성이 집중하는 가운데 군사 전략 전술도 중단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전과 참작전은 전쟁의 성격과 무기내용이 어떻게 변질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전쟁이론도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의 전쟁이론은 제한된 전문가들의 독점물이 되다 시피 하여 왔으나 현대전과 참작전에 관한 이론은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

이제 인간의 활동영역이 땅과 바다로부터 우주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과 수단이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게 됨에 따라 전쟁의 성격과 방법에도 새로운 무기체계가 요구되면서 항공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뛰어나게 되었다. 1903년 인류사상 최초로 동력비행의 성공으로 제1차 세계 대전부터 항공기가 전쟁에 등장되면서 무기로서의 가능성이 확실히 입증되었다 하겠다.

항공기는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하여 무한한 전투 잠재력이 발휘되면서부터 공군력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하겠다.

그 후 월남전과 한국전에 이어 중동전과 걸프전을 거치면서 공군력은 현대전을 주도하는 군사력으로 자리를 확고히 잡게 되었다. 현대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전쟁의 성격을 이해 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오늘날 군사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군사력의 질과 양의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군사력 건설시 병력 집약형 군사력에서 정밀무기 집약형 군사력으로 변신의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날 미·소가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재래식 무기위주로 수행되었던 한국전과 월남전에 비하여 보다 현대화된 정밀무기 위무장된 군사력으로 수행된 중동전과 걸프전은 뚜렷하게 변화된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가. 제한전의 성격

현대전은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인하여 강대국들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약소국에 의한 대리전 형태로 제한전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성격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전쟁은 정치의 한 수단이기 때

현대전의 성격과 공군력의 역할

문에 정치적 요구로 전쟁은 제한을 받아 왔다. 미·소 양대국은 지난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었던 무력분쟁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으면서도 전면전 대결로 인한 상호 파멸을 피하기 위해 대리전 방식을 택해 왔으며 미·소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제한전에 국한시켜 왔다 하겠다. 그러나 전쟁에 참전한 교전 당사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히 자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전면전의 성격이 되어 왔다.

배후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국가 생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자국의 인적 물적 부담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전쟁에 직접 참전한 당사국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강대국의 의도에 따라 전쟁의 개전과 종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한전 성격은 전쟁 당사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강대국 입장에서 본 것이 전쟁의 제한 요인들도 대부분 정치적 목적에 기인되어 왔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제분쟁 가능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제한전 성격에 입각해서 자국의 안보정책을 입안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대량 소모전의 성격

수차례 걸쳐 치르어진 중동전의 결과에서 집계된 전투손실은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스트예골은 일일 평균 3억불의 전비를 사용하였고 18일간의 전투에서 교전쌍방은 2,500 내지 3,000여대의 전차가 파괴되었다. 항공기도 600여대가 손실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 중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6개월간 파괴된 전차 650여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실로 엄청난 전투손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전된지 불과 10여일 만에 교전 쌍방은 전쟁 대비물자가 거의 바닥이 나서 강대국의 지원이 없었다고 하던 사실상 전쟁이 불가능하여 휴전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지에서 발생한 제한전에서는 강대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하는 공멸의 양상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다. 단기결전의 성격

현대전은 장기 지속을 위한 인적 물적 한계 때문에 단기결전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손자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는 국력을 증충원하여 총력전을 전개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쟁은 국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최단기간내 종결되어야 한다는 단기결전을 주장하였다. 현대전이 단기결전으로 종결이 요구되는 것은 장기 소모전이 될 경우 교전 당사국과 이해 관계를 함께 하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교전 당사국도 강대국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용이하지 않는 데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교전 당사국의 국력의 한계성과 강대국의 지원 의지 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 현

대전이 단기결전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할 때 현대 군사력은 기동성, 정밀성, 파괴성을 결비한 공군력이 최상의 군사력이라는 것을 거듭 확신하게 된다.

라. 기습공격전의 성격

기습공격은 적의 전쟁계획과 군사력을 일시에 마비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총체효과와 작전성과가 크기 때문에 과거전에서부터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원칙처럼 적용되어 왔다. 전쟁감시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이론적으로는 병력의 이동 군수물자 동원 등 일련의 군사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기습공격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전사의 기록에 의거하면 개전초 전쟁 당사국의 기습공격이 성공됨으로써 전승의 계기

할 수 있다. 항공기가 갖고 있는 이동성과 고도성은 작전지역의 제한 작전 장애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임무 완수가 가능하며 작전 요구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나. 공군력의 능력

공군력은 항공기만이 갖고 있는 천성적인 특성으로 많은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 첫째로 공군력은 위급한 작전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임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격과 방어를 융통성 있게 선택 또는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둘째로 유사시 다양한 요구되는 임무를 즉각 대응할 수 있다. 국가 비상시 공군력은 대응태세를 최단시간내 증강시키거나

현대전은 항공무기체계의 경쟁 자국의 안보정책입안 발전시켜야 대량소모 단기결전의 성격과시

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1939년도 독일의 폴란드 기습공격, 1941년도 독일의 소련 기습공격, 1941년도 일본의 미국 진주만기지 기습공격, 1950년 북한의 한국 기습공격, 소련의 1956년 헝가리 기습공격, 1981년 폴란드 기습공격을 위시하여 4차에 걸친 중동전에서도 한결같이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발발되어 그 작전들이 모두 성공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기습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전 당사국들의 정보부재가 아니라 국가전쟁 지도부의 정보불신과 기습공격시 초도 대응 조치가 부재였던 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전은 선전고도 없이 개전되며 초전에 작전성과를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기습공격의 전쟁 성격이 지속될 것으로 믿어진다.

2. 공군력의 특성과 능력

항공우주 과학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의 결실이 공군력을 급성장 시킴으로써 다양한 작전요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 현대전의 핵심전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로 보아서 공군력은 향후 질적 양적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된다.

공군력은 현대 군사작전에 필수요인인 융통성, 기동성, 신속성, 파괴성 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어떤 성격의 군사작전에서도 즉각 대응 가능한 특성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하겠다.

가. 공군력의 특성

공군력의 특성으로서 항공기의 속도는 임무 수행시간을 최소로 단축시킬 뿐 아니라 교전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응 시간과 대응전술에도 제한과 충격을 심하게 가

필요시 해제시킬 수 있으며 대응전력을 최단시간내 현위치에서 출동시켜 교전 당사국에 자국의 의지를 신속히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셋째로 교전 당사국의 견고하게 구축된 방어망을 은밀하게 침투시켜 중요한 군사목표를 일시에 공격 파괴시켜 전쟁 의지를 감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3. 공군력의 역할

공군력은 국가보위를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 목적달성에 결정적 역할이 가능한 군사력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자리 잡게 된 양극체제의 지역 분쟁에서도 분명히 입증되었다. 공군력은 평소 전쟁감시 임무 신속대응 임무를 완수하여 전쟁을 억제시키고 전쟁 발발시 전가용전력을 공세 전력화시켜 단기결전을 목표로 전승을 행하

하는데 요구되는 핵심 군사력이다. 현대전의 성격과 공군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현대전의 필수 군사력이며 국가의 핵심 군사력임이 명약관화하다 하겠다. 공군력은 첫째로 평소 전쟁억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공군력은 평소 전쟁을 억제하고 영공을 수호하며 전시에 최초로 대응하여 전승을 행취시켜 국가보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쟁 억제제는 군사도발을 기도하고 있는 적대국에 대하여 결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의지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전 당사국은 침략의 대가로 응징의 두려움을 느껴야 그 실효가 기대된다. 공군력은 신속한 대응전개, 은밀한 침투력, 정밀공격과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

(6면에서 이음)

의 군사도발을 거부한다는 국가의 지를 과시함으로써 전쟁 억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라크의 오시락원자로 공격으로 핵무기 확산 및 전쟁도발 능력을 일시에 제거했으며 자국의 피랍생객을 구출하기 위하여 수천마일 밖에 위치한 엔테베 공항에서 수행된 기습구출 작전은 자국민의 긍지와 국익을 수호하게 하였다. 또한 국제 테러비호 세력인 리비아의 특정목표 공격과 무력 시위가 국가이익 수호 전쟁억제력 행사에도 핵심역할을 하였다고 믿어진다. 이와 같이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전쟁 억제력 행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공군력 건설유지에 군사정책의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둘째로 전쟁 발발시 공군력은 전승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공군력은 평시 전쟁 억제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전시에 단기간전과 단기종결 역할이 가능한 군사력이다. 전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공중우세를 획득함으로써 우군의 군사작전을 유리하게 보장하며 적의 전략전술 목표를 공격하여 전쟁의 지평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군력은 그 역할이 다양하며 광범위한 군사작전 영역을 담당할 수 있고 현대전에서 군사력의 핵심 역할이 발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자전에서도 그 역할이 결코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한다.

4. 결 언

현대전의 성격과 공군력이 갖

공격과 방어 임의선택 특성

「이」공군 이라크 도발 능력 제거

공중우세는 육·해군 활동을 보장

전쟁억제 전승의 핵심이 공군력

기습공격 지형지세에 다각대처

고 있는 특성과 능력으로 보아 공군력은 평시에 전쟁 억제 전력으로서의 역할과 전시에 단기결전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중요한 군사력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공군력은 다양

한 임무에 그 능력을 발휘했으며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 등을 거쳐 최근에 수행된 걸프전에서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전승의 결정적 역할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공군력이 전쟁에서 막강한 군사력 과시와 전승의 결정적인 군사력 발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공군력 자체가 갖고 있는 군사력의 특성과 타군종이

적의 공군력 앞에 노출하게 되어 군사활동의 제한과 군사력의 손실을 감수당하게 된다. 공군작전에 있어서 공격자와 방어자 일어 나고 있으나 공군력에만 국한시켜 비교하여 보면 공격자의 입장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된다.

따라서 공군력은 공세 전력으로 운영됨이 전락 전승적으로 일치되는 개념이다. 잠자 예상되는 한반도 전쟁에서도 공군력의 역할이 막중한 것이며 핵심 군사력이 될 것으로 확인한다. 잠자 한 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은 북한이 그들의 우세한 공군력을 앞세워 기습공격으로부터 개진된다는 것이 한미 정보관들의 일관된 정보 판단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야기되는 전쟁은 개진초 대응시간 대응전술의 극심한 작전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지형지세와 잠기 휴전대치 국면에서 구축된 작전 장애요소를 감안하여 불 대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 억제를 위해 현대전의 핵심 군사력인 공군력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겠다. 국가안보가 국민적인 관심으로 승화되고 있는 시기에 군사력의 핵심인 공군력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강력한 범 국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한다.

(2면에서 이음)

증명되지 못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두번째는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가뭄대비책이 아니라 가뭄이 닦진 다음에 극복대책으로 주로 시행되던 방법이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수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규모 투자에 걸맞은 수규모의 자원만이 확보된다는 점, 관리소홀로 한번 사용한 후에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고, 앞으로는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세번째 해결책은 댐의 증설이다. 대규모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가장 근본

적인 방법이다. 홍수의 피해와 홍수로 인한 수자원의 유실을 막아 수자원의 시간적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토지가격이 높아 예산부담이 무척 커진 점, 시설하는데 필요한 지형조건이 까다로워 적절한 지역을 찾기가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네번째 방법은 운하의 건설이다. 중부지방의 홍수로 남부지방의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즉 수자원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자원 유통만을 목적으로 한 운하일 수도 있고 수화물 유통까지 가능한 운하일 수도 있다. 수화물 유통까지 고려한다면 고속도로의 유통체 증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네델란드의 전국을 관통하는 운하, 미국 캘리포

니아의 용수 이용용 운하, 리비아의 대규모 운하, 중국의 양자강과 화이하강 사이의 운하 등을 실례는 많이 있다. 그러나 투자비용이 엄청나다는 단점이 있다.

다섯번째는 수자원 확보와 관리를 전담하는 삼설기구 또는 정체의 확보이다. 이 방법은 최근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다. 투자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효과 기대되는 방법이다. 호우나 가뭄은 체계적으로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재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비책의 빈곤으로 인해 재해발생 후에만 일시적, 충동적, 즉흥적인 대책이 낱발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기관과 기관 사이의 입장차

이나 협력부족, 사전 준비 철차의 부재, 사인 비능률 등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다. 현재 체계는 방재요원이 각 구청에 소속되어 각기 자기 기본업무를 보다가 재해발생 후에 소집되어 운영되는 체제이다. 전담요원으로 몇 명이 평소에 지정되어 있던 하나 전문요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하다. 이런 기구에 심도있는 대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나 각각 일정범위의 한계에 구속되어 있다.

이상 다섯 가지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적 대책이 수립된다. 먼저 수자원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전국을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한다. 먼

저 남한 내외에서 중부와 남부를 내고 통일 후에는 북한까지도 있다. 건설 중에 필요하면 댐을 증설한다. 운하 공사 중에 생산되는 골재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건설 후에는 이를 이용한 수익 사업으로 결비를 충당한다. 또한 이 수익은 인공강수의 연구, 지하관정의 유지보수 및 증설에도 투자되어 수자원 확보체제가 더욱 튼튼해진다. 결과적으로 전국토는 하나의 댐줄로 연결되고 민족공영체제는 더욱 공고해진다. 따라서 한반도의 수자원 확보대책은 다른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통해 해결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같은 누구에 의해 거대한 공사가 시작될 것인가가 문제될 뿐이다.

★(4면에서 이음)

면 具體的으로 教育課程 어느 것과 상관하여 얻어지는가 檢討하고 評價해 나가는 System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空士十訓도 公平無私한 信賞必罰이 되고 責任完遂하면 率先垂範하게 된다. 그래서 더 具體的으로 연구하여 生徒生活을 어떠한 System으

로 지도해 나가면 空士十訓을 實踐할 수 있는 人格이 形成될 것이다. 檢討해 나가야 할 것이다. 空軍사관학교 출신은 한결같이 價値指向形의 價値觀을 갖는 사람들이다 하는 特性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人を 大別하면 利己追求形의 價値觀을 갖는 部類와 價値指向形의 價値觀을 갖는 部類로 區分되는데 한 社會의 지

도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價値指向形의 價値觀을 갖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4年間の 母校 教育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價値觀을 100% 定立시켜 줄 수만 있다면 空士十訓을 實踐하는 人格이 自然的으로 구비되기 마련이다. 끝으로 총동창회에서 서로 교문 문제를 연구 논의하는 팀을 만들어 母校교육담당부

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연구실 무회의체를 구성하여 전문문제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 하여 공군사관학교 출신임을 자랑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서로 우대를 강화하여 나라를, 사회를, 가정을 위해 보람찬 생활을 해 나갔으면 얼마나 멋이 있을까.

◎(4면에서 이음)

계 어느 나라에 가 보아도 인물을 만들고 육성하여 죽은 후에도 동상의 기념으로 또 역사의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데도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인물이 될 만한 존재를 소홀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는 인물도 모략과 중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역사적으

로 평가되어 이미 건립되어 있는 대통령 동상도, 3·1 운동 동상도 허물어 드리는 망국적인 의식에 중지부를 찍자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외식을 닦기 전에 우리 동창회 조직에서부터 인물을 발굴하고 기회의 길을 터주고 격려하여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우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야기 같으나 불가능은 아니라고 본다.

제1단계로 지나친 지연, 학연, 혈연 차별만 안해도 성공 가능하다고 보며 인물이 따른 적절한 보직, 진급은 그 다음 단계의 성공의 관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 단계 모두가 추상적이고 원론적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로마의 문화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길에 로마로 통하는 길로 이어졌을 때 가능했다는 교훈을 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1999년 공사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면서 더욱 튼튼한 동창회 기반을 구축하여 기필코 항공우주 시대의 핵심전력 위상을 확보 유지하여 영원토록 공군사관학교 교가를 구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동창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文學



朴雄鎭(空士 4期)  
·空士 總同窓會 會長  
·詩人

1. 詩人的 길로 들어선 辯辯

우리들의 生活는 모두가 詩다. 生活를 떠난 어떠한 表現도 詩가 아닌 것처럼 생활을 詩화한다는 것을 眞實한 感情의 발로임은 물론 詩人的 모든 生活이 詩作品과 함께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남을 감동케 하는 것은 곧 詩人的 올바른 自己生活의 表現으로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體系的인 詩論의 知識이 없이 략장시절부터 오랜 生活를 통하여 많은 詩를 써왔다.

그리고 社會生活를 하면서도 문인이란 이름을 거부한 채 수없이 발표를 거듭하다가 늦은 나이에 詩人이란 칭호를 얻고 그에 대한 情열이 넘치도록 글을 써왔다. 마치 꺼진 찻머리 속에서 다시 활력이며 살아 숨쉬는 不死鳥의 마지막 情熱을 불태우듯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잘 썼든 못 썼든 간에 이것이 후이든 不幸이든 간에 나의 詩作品 속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그것과의 무한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내 人生의 마지막 주어진 使命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人間은 누구나 自己에게 配定된 時間을 살다가 마지막에 떠나야 한다는 것은 이미 豫見된 일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면서 고독한 존재이다. 自己에게 주어진 소중한 壽命과 時間을 어떻게 장식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個人의 문제이지만 삶의 告독을 철저히 느껴본 나는 결국 찾은 것이 詩作이라는 익숙한 행위 속에서 나의 人生과 喜悅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기도 모르겠다. 바로 나의 意識속에 있는 時間과 죽음을 그리고 고독과 영원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늘 지리하고 있어 그러한 詩魂속에 젖어서 살며 또한 그것이 잊혀지지 바라는 生活의 詩를 쓰고 싶은 것이다.

2. 浪漫的 情熱의 詩觀

- 아흔번째 시집 「파도」의 서문에서

金奎稟 詩人은 浪漫이 있는 詩人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세상살이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볼만하다는 마음가짐은 바로 낙천적인 思考方式를 갖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즉 낭만적인 체질에다가 회노애락의 감정 표현을 글을 통하여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이다. 더욱이 自己에게 주어진 기회를 효과적 작곡적으로 구사하는 가운데 늘 새로운 경이를 맛볼 줄 아는 詩人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무릇 人間에게 낭만적인 기분이 없이는 하루도 생활하지 못할 것이다. 낭만적 감정이 없는 사람은 木石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나는 정

나의 詩論에 대한 自省的 考察

열적인 鄉土性과 地方的인 土俗性을 나의 生活속에 深化시켜 낭만적인 詩觀으로 조화된 詩作品을 表출할 수가 있었다. 낭만적인 감정이 풍부하게 作用하면 含蓄 詩創作의 의욕과 원동력이 加重되는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붓을 멈추지 않고 정열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감정을 모두 개방하면 센터벨리듬이 걸잡을 수 없는 무늬를 이룬다. 때로는 哀愁와 情恨이 主調가 된 詩의 感情의 配合가 자만조에 빠지기 쉽다.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生存할 價値가 없다고 본다.

바로 自然的인 낭만과 人生이 念願하는 內在的인 美를 追求하면 第二自然을 창조할 수 있는 生命의 永続性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詩의 價値는 이와 같이 獨自性이 요구되는 人間性의 全體內容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낭만적인 內面生活은 外面的인 言語의 선택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3. 無技巧의 主情的 作品의 內面世界

모든 詩인이 다 그렇겠지만 나도 나의 고향 나의 祖國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본다. 지나간 어린시절의 그리움이나 향수는 바로 어머니에 대한 思慕의 人신양으로 연결되어 詩作品속에 현재성을 띄고 역사적인 說話까지 유도하는 독특한 심리적 과정까지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詩人的 恍惚상을 본다」라는 말 한마디로 朴利道 詩인이 나의 詩作品을 평했다. 지나간 나의 세월과 공간의 공감을 교직하는 作業을 지금 내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 전개되는 나의 기법은 환상적인 이미지네이션이 극대화되어 더러는 스스로 신비감마저 감을 때가 있다. 여기에 서정적인 신선한 언어 감각으로 물기가 마르지 않도록 분출하는 샘을 끊임없이 파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험의 세계를 회상하는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하여 표현의식을 극대화한다. 이는 바로 四次元的인 空의 世界를 눈앞에 보이도록 神과 靈과의 교감을 통한 메타피직(Metaphisic)한 통로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적극적이 창작활동이 도전되고 싶은 잠재의식에 대한 복종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자연히 상상력의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미지네이션(Imagination)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란 人間이 스스로 지어내고 관념화한 하나의 개념적인 意識에 지나지 않지만, 보편화한 개성이나 특성은 그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정신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詩는 主情的인 호소력에 힘입은 언어상의 기교 이전에 특유의 정서가 깊게 깔린 모성애를 표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또한 나의 성장 과정에 역설된 美의 背景을 놓고 볼 때 거부감 없는 자연스러운 표출일런지도 모른다.

나의 詩中에서 꽃을 植物의 꽃으로도 보지만 存在의 價値로 보는 眼光에 의하여 象征화시킨 꽃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事物을 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4. 自己眞實의 表象化

人間이란 죽음이 다가오면 自己의 自身을 뒤돌아다 본다. 늙기도 전에 더러는 너무 늙은 나이에 自己自身의 人生歷程을 뒤돌아보지만 세월이란 늘 自己편에서 서주지 않고 非情함이 있는 것이다. 人生無常 허무와 眞實을 곱씹을 겨를도 없이 自己眞實을 美化시키면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詩人的 豫感이나 豫靈은 길도 짧은, 멀고도 가까운 세월의 의미, 즉 人生哲學的인 內面世界를 스스로 發散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순간에서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에서 순간을 보는 眞實에서의 格調 높은 言語와 文字의 表現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주만물이 자연의 조화속에 서 깊은 靈理를 터득하고 組合하는 것은 그 作品속에서 자신을 同化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정신력의 소산일 것이다.

5. 韓國의 主知詩 精神

흔히들 韓國의 傳統의 情熱의 美學을 「情恨」이라고도 한다. 이는 高麗歌謠의 「가시리」에서부터 素月的 「진달래꽃」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뿌리박은 이별과 눈물 그리고 한숨과 체념 또는 원망과 절망 등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한 국적인 俗性에다가 유교적인 생활관습과 禪思想이 특징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人生의 不幸感이 전의 애정에 대한 터부여 어찌 못하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詩作品의 世界는 바로 그 時代生活의 反映이다. 그 시대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들의 發生過程이 行動과 思想 경험적 관점으로 구성된다. 그때와 같은 觀點이 바로 향토적인 情熱에 오래도록 침잠되어 內在하고 있음을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東洋의 풍경은 東洋畫속에 담겨나오듯이 一時에 西洋畫속에 뛰어 들 수 없는 것이다. 서양에 있어서 종교적인 神의 中에서 소외된 한 社會에 대하여 J. S. Eliot는 The waste land(황무지)에서 심오한 Reality를 탐색하고 神과의 交感을 위하여 절망을 떨쳐버리고자 作品을 썼다. 나는 人間으로서의 詩人, 市民으로서의 詩人으로서 늘 祖國을 사랑할 것이다. 詩의 能力과 詩의 活動을 통하여 아끼는 글을 쓸 것이다. 마치 知性的인 소리가 自由스럽게 날아다니며 韓國의 主知精神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知性을 존중하는 예술의 詩作品 活動에 전념할 것이다.

6. 純粹詩를 向한 自然的 同化

文學作品과 歷史와 的 差異點에 있어서 創作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表現하는 일이고 歷史는 이미 일어난 일을 記述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心理적으로 가능

한 사건을 의미하며 現實의 사건보다 더욱 眞實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詩作品은 創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나 想像力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양한 社會生活의 고뇌에 찬 都市의 삶을 詩와 人間을 통하여 분출하고 싶은 충동이 敘述的인 心象으로 純粹詩에 집착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소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詩人은 누구나 감정의 沈沒, 人間 본래의 순수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純粹詩는 도달하고 싶은 하나의 목표이지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늘 詩를 쓰고 詩論을 말할 때 거시적인 철학으로 보면 바로 人間은 自然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人間과 自然의 근본적인 차이는 허례와 가식의 有無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自然은 人間에 비해 허례나 가식이 없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自然은 “스스로 그러한”의 세계이다. 그래서 일찍이 東洋에서는 자연을 善한 것으로 보아왔다. 근본적인 孟子의 性善論은 자연으로서의 人間의 道를 重視한 것이리라. 곧 그 요체를 良知라 했던 것도 人間의 자연적인 순수함을 지칭한 것이리라. 물론 老莊의 사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가 물을 최고와 善으로 피력했던 “上善若水”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人間이 자연을 닮으려는 정신적, 생활적 태도는 늘 존중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哲學的 傾向을 自然同和라고 한다면 나의 詩도 대체적으로 자연동화의 美學的 접근을 통하여 純粹詩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文學世界 3, 4월호에 게재된 諸海萬 文學評論家의 朴雄鎭論에 있어서 이와 같은 論旨로 “인간, 자연 그리고 歷史성찰”이라는 書評은 오래 오래 두고 음미해 볼 만하다.

7. 體驗의 슬픔과 영혼

나는 詩春의 午前과 午後를 祖國앞에 서 있었다. 이 民族 苦難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열에서 한눈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다 젊은 나이에 사회의 무한 경쟁속으로 뛰어 들지 못한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늦게나마 言語의 意識를 표출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心情的 諸諒이 영원한 아픔이 되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되어 스스로 한일기의 낙엽이 되어 필경과 있는 외로움을 맛보기도 했다. 中國의 大詩人 李白이 客愁에 찬 寒風의 아픔을 노래했듯이 나의 內心에도 늘 외로운 고독의 향수를 달래고 있었던 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아픔은 어떤 病的인 아픔도 아니며 육체에 상처받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나 自己 體驗이며 이와 같은 체험은 成長과 成長을 비롯한 오랜 시간동안 나의 內面에서 共存하여 왔다.

이와 같은 아픔과 共存共生하

(8면에서 계속)

면서 詩作品을 표출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나의 詩를 읽어본 사람은 情緒의 內面에 흐르는 詩心의 빛깔에서 實感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의 詩를 읽으면서 對照의인 美를 追求하고 詩의 구성과 格調를 表出할 수 있는 言語의 구사는 四百餘年(지금까지) 約 卽백편의 시를 썼음)의 詩를 쓰고난 다음부터의 일이다.

더욱이 宗教(죽기 전 어느 종교에 귀의할지 모르지만)보다도 더 강한 삶과 죽음이 詩人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철학을 나는 가지고 있다. 아무리 죽어도 나의 영혼은 영원한 삶을 가지고 환생할 수 있는 生命力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8. 맺음 말

詩人 권일승은 나에게 대한 詩評으로 아주 쉽고 까다롭거나 어려운 구석이 없다고 했다. 필요없는 말, 즉 Sophistication을 추방하고 결집성을 탈피했다고 한다. 存在論의 입장에서 서서 事物의 內面的 意味를 追求하는데 있어 보다 쉽고 짧게 純粹詩를 표방해 나갈 것이다. 남은 나의 生涯의 行爲는 喜悅을 發見하고 사는 詩作業으로 一貫할 것이다.

비록 天才의인 재능은 없어도 쉬지 않고 열심히 쓸 것이다. 社會的으로 축적된 경험과 많은 여

행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관찰력으로 自然과 人間의 親和力을 결집하는데 개척자적인 詩人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끝으로 나의 詩 汗편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허름한 꿈 한자락  
기다리게 해놓고  
어둠을 사취먹은 별빛은  
안개속에서 서성거린다.

행복이 오라해도  
길이 없어 못갔는데  
이슬박을 들고있는  
한세월의 숲덩이  
먼 불빛 그리움으로 문헌다.

아  
시간의 겹질들이  
아직도 나를 밟고 외길로 가네

- 朴雄鎭 第8詩集 「꿈 한자락」 全文 -



朴 雄 鎭 약력

공군사관학교 졸업(471)  
미국 일리노이주 맥켄드리대학 명예 경영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웨스턴대학 명예 문학박사  
한국문인협회 시인, 문학평론가  
중국 吉林長白大學 客員教授  
서울 연희 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  
서울 영동 제일병원 이사장 역임  
사단법인 한국 화술교육회 총재 역임  
국제 라이온스협회 309-J(서울) 지구 총재 역임  
국제 라이온스협회 309(한국) 지구 총재 협의회 부의장 역임  
한국 연예정보 신문사 상임고문  
한국 음반가협회 상임고문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주)일신화학 대표이사 19년 6개월 경영  
각종 세계대회 및 국제회의 참가 35회  
세계 평화대상 수상, 국제 우호친교상 수상, 충청문화상 수상  
제1회 순수문학상 수상, 국제 아카데미 문화대상 수상

저 서 수필집 「나무일 강목에 띄우고」  
시 집 1시집 「덕분에 처한 박꽃」  
2시집 「바깥에 여동터에 잠어드는가」  
3시집 「가을시 시승 쓴다」  
4시집 「남자의 房」  
5시집 「기쁨의 숲 한각」  
6시집 「도시에 떠 있는 선」  
7시집 「내게 무엇이 남았는가」  
8시집 「푸른목속의 그림자」  
9시집 「파도」  
10시집 「아가야, 창문속 여여두렴」  
11시집 「또다시 나무가 되어」  
평론 문학평론, 시 해설 다수

주 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8-13 전화 336-1608, 7761

時 論

어느 나라나 안보를 우선 정책으로 삼는 것은 안보가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이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3년간의 전쟁을 치른 형편이니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나 북한은 세계의 변화를 외면한 채 남한의 세계화하겠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전쟁준비에 열안이 되고 있기에 더욱 안보가 중요시 된다.

어느 사학가에 의하면 인류역사 5천여년간 1만 4천 5백여회의 전쟁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931회의 외침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인상이 든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인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전쟁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럼지만 우리는 날로 더 큰 전쟁의 위협을 느낀다. 이 전쟁은 국가간의 무력도발이 아니라 무한 경쟁에서의 경제적 위협인 것이다.

탈 냉전시대에 들어와 냉전 때

는 위협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위협의 잠재적 요인이 위협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표면화되면서 안보의 개념과 범위가 바뀌어 가고 있다. 비단 무력에 의한 전쟁뿐만 아니라 환경, 종교, 민족, 등 국가, 국내간의 빈부의 차이 등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

인이라고 해서 국민들도 총과 칼로 무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 한 사회를 만들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국민이 담당해야 할 안보의식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화에서 더불어

계에서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 가운데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전쟁의 요인이었던 이념적 대결은 남북 상호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어 탈 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모든 전술이 변하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을 침천지 원수라고 국제사회에 매도하던 북한이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안보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비록 북한의 전술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한국의 공산화와 한반도의 적화통일은 변함이 없음을 국민들에게 특별히 인식시켜 안보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보는 더이상 국군들만이 맡아서 해야 할 특정한 영역의 임무가 아니라 편안하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안보의식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과 군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안보를 생활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보는 걸치레에 불과한 것이다.

新 安 保 意 識



강 옹 구(공사 6기)  
총동창회 사무총장

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포괄적인 안보인 것이다.

군은 전쟁이 나면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

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와 군인정신으로 안보의식을 무

어 살아가 수 있는 정신적, 도덕적 성숙성을 갖추는 것이 바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능력이다.

무기로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군이 담당해야 할 안보책임이라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잠재력을 갖추는 것은 국민이 담당해야 할 안보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의 수행과 남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제문제에 있어서 보다 확고한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목표가 확고해야 국민들도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군과 민관 정부가 하나가 되는 안보의식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안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안보의식이 전제되어야만 동북아에서 나가서는 세

성공대  
현시  
중에서  
하늘에 건다.  
드높고 푸르른  
하늘에 건다.  
하늘에 건다.  
부귀와 영화에  
눈을 돌스나  
세계를 품고  
날으는 의지  
영겁을 지나도  
찬연하리라.  
청춘의 순결을  
한데 모아서  
성무대 언덕에  
치솟는 불길  
보라  
어둡고 흥미한 세상에  
의연히 선  
불사조의 모습들

# 삶의 지혜

## 노인 수양詩

- 一.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 그리고 군소릴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일러주고 알고도 모르는 체 어 수록 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 하다고
- 二. 옛날 일을 일랑 모두 잊고 잘난 체 일랑 하지 마소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 그대는 또는 해 :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 三. 돈.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 그렇지만 그것은 걸 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친구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오 손자 보면 옹돈 한푼 줄 돈 있어야 :
- 四. 아프면 안되오 늦었지만 바둑도 배우고 氣체조도 하시구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시구려

(자자미상)

### 칼 럼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하다. 물은 둥글게 하고자 하면 둥글게 할 수 있고 모나게 하고자 하면 모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힘을 가해서 모양이 변한 뒤에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물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히 적응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물의 강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물은 참을성이 있어서 물 한방울 함박물은 단단한 돌도 꿰뚫을 수 있고 홍수가 질 때는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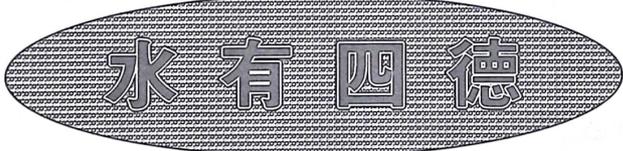
물은 모든 것에 혜택을 주지만 남과 지위를 다투는 일이 없어서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지대에 모여 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물처럼 겸허해서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허물이 없는 것이다.

본디 인간의 본성은 물 흐름과 같은 것이다. 그 길을 동쪽으로 트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로 흐른다. 이처럼 사람도

인(仁)이며 맑은 것을 추구하고 탁한 것을 꺼리며 찌꺼기와 더러운 것을 쓸어 버리니 의(義)이고 부드러운나 범하기 어렵고 약하

으며 이자의 글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동양의 전통적 덕목인 인, 의, 용, 지를 품고 있는 도의 본체까지 승화시키고 있다.

<편 집 인>



가르침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물은 우리 삶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므로 예로부터 가르침을 얻으려 했다.

「이자(己子)의 군치(君治)에는 물의 속성이 지니는 네가지 덕목을 적어 놓은 대목이 있다. 물에는 네가지 덕이 있으니 이방에 모든 자연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만물을 통하여 흐르게 하니

지만 강한 것을 능히 이기니 용(勇)이며 강으로 흘러 하천으로 나감에 나쁜 것을 포용하고 있으나 그 흐름이 겸손하니 지(卹)이다.

고대 동양에서의 물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물질로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주론 형성과 있는 가장 근원적 요소 도(道)의 표현 학문과 철학적 이론의 비유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었



## 首都精密産業社

■ 正確한 時間 ■ 아름다운 디자인  
그런 時計 “CAMERON”을 만듭니다.

代表 吳 世 昌(공사 7기)

本社 : 서울特別市 九老區 梧柳2洞 216

TEL : (02)685-4449 FAX : (02)686-1270



박 종 권(공사 9기)  
· (예) 공군소장  
· 한국항공진흥협회 부회장

### 볼 새

이 황량한 하늘의 길을 향해  
역세게 날아가나 봄새들아,  
너의 영원한 이슬은 뺨간 마후라  
저 뜨거운 태양의 몽광로 속까지도  
저 차거운 밤의 별무리 속까지도  
이 길을 따라 날아가라  
우리는 그렇게 커온 봄새들이니라.

누가 너의 진심을 아는가.  
누가 너의 사랑을 아는가.  
그 누가 너의 고독을 아는가.  
그래서 그렇게 떼지어 날으는  
봄새들이인가?

나는 느끼노라.  
이 빠른 윤속에서 너의 신념을,  
이 높은 고도에서 너의 의지를,  
그리고 너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깊은  
애수들.....

나는 헤아리노라.  
너 목덜미 붉디붉은 빛깔에서  
피보다 진한 망향음,  
태양처럼 뜨거운 정열을,  
활활산처럼 치솟는 너의 생명을,  
그래서 너를 뺨간 마후라나 이슬했다.

나도 이 황량한 길을 함께 날아가리.  
태양을 향해,  
별무리를 향해,  
높이 높이 날아가리라.  
그리고 찬란히 펼쳐오는 내일을  
너의 봄새들과 함께 맞으리.

## 항공군사자료수집

국내유일의 항공군사 박물관인 공군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 태동한 독립군 공군으로부터 2000년대 항공우주시대 세계일류 공군에 이르기까지 항공관련 역사 자료와 유물을 수집 전시 및 보관 관리함으로써 공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자료를 소장하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 수집자료

- 독립군 공군(1920년대) 관련문서, 서적, 훈장, 표창장, 복장, 사진 및 각종 기념품 등.
- 공군 창설기(1949년 전후) 관련 각종 기념물, 사진, 유물 등.
- 6·25 한국전쟁(1950년), 원남전, 결프전, 대간첩작전 등 공군참전 기념자료.

#### ■ 수집방법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품 기증의사를 알려주시면 출장방문하여 인수증을 교부 수령하겠습니다.  
(비기증자료 복제 후 반환)

#### ■ 수집 후 관리

안전하고 철저한 과학적 관리체제하에 기증자 명의로 전시 또는 영구 보존합니다.

#### ■ 연락처

363-840 충북 청원군 남일면 삼수리 사서함 335-1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전화 (0431) 50-6185  
(0431) 229-6070~3

## 공군사관학교

### 編輯後記와 寄稿文 案内

원고를 보내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광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젊음을 불살라 조국하늘에 바치고 나이 들어 사회에 나와 나름대로 나라와 겨레에게 봉사하는 거룩한 人生歷程을 체험하면서 꿈을 수 없는 정분을 동문간에 진솔하게 나누는 것도 큰 보람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니 자진해서 원고를 기탁하시고 만일 청탁하면 거절마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1. 期生會 動靜 또는 消息은 200字×5枚 內外
  2. 自由 寄稿時 題目은 自由 枚數 200字×30枚 內外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7동 1178(150-057)  
TEL : (02) 845-1090 FAX : (02) 845-1091

編輯發行人 드림

## 漢都流通株式會社

유통업체로 製藥會社에 관촉물 納品

제약회사의 관촉물이란 제약회사간에 경쟁적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약종류, 또는 약의 매출량에 따라 전국 약국과 병원에 제공하는 것이며 매월 종류가 바뀌고 한 번 사용한 것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음.

代表理事 白 相 熙(공사 8기)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13(성원빌딩)  
TEL : 564-5181~4, FAX : 3452-3003

발

축

전

백년민음 - 남광토건



# 아름다운 민음의 공간창조

오로지 이 하나를 위해 남광토건은 1947년 창립 이래 반세기동안 꾸준히 정진해왔습니다.

이제 남광토건의 손길이 닿지 않는곳은 없습니다.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에서  
 환경을 지키는 하수처리 시설까지—  
 안락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최첨단의 인텔리젼트 빌딩까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  
 기술과 품질이 결합된 민음의 공간,  
 쌍용그룹의 남광토건이  
 백년민음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 S 남광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영 선 (공사 4기)

TEL : 02) 544-3103

FAX : 02) 540-0270